

가사 노동의 위기와 여성

하 재 성*

국문초록

가사 노동은 여성의 정체성 위기를 가져온다. 특히 오늘날 많은 전업 주부들은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들에 비해 자존감이 낮고 사회적 소외감을 경험한다. John Calvin에 따르면 여성의 가사 노동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이다. 그것은 곧 한 인간이 하나님께 책임져야 할 소명을 의미하며, 반복적인 가사 노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사 노동을 하는 여성들도 자신의 모든 노동을 통해 거룩한 고백과 영적, 인격적 초월의 체험을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자칫 권위주의적 신학 해석은 여성의 가사 노동을 의무화 하면서 그 의미와 보람은 박탈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사 노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면 할수록 깊은 배려 가운데 가족과 배우자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는 만큼 가사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관심과 배려가 있을 때, 신학의 권위에 기대어 마치 남존여비의 성 역할이 고정된 진리인양 고집하는 그릇된 차별을 막을 수 있고, 또한 여성들로 하여금 가사 일에 자신을 물어버림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불행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심단어 : 칼빈, 직업 상담, 노동, 소명, 성 역할

I. 여는 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비롯한 여성의 가정에서의 임무는 근본적으로 여성들

• 논문 투고일: 2009년 09월 23일

• 논문 수정일: 2009년 10월 22일

• 게재 확정일: 2009년 11월 13일

* 고려신학대학원

로 하여금 자기 삶에 대한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게 한다. 특히 가사에 전념하는 오늘날의 많은 여성들은 사회적 활동을 하는 많은 동료 여성들에 비해 자신은 정체되어 무의미한 가사 노동만 반복하고 있다는 불편한 자괴감을 경험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사회적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며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 간다. 전업 주부의 활동 영역은 가사 노동에 의해 제한되어 있는데 남편은 사회적 성취와 더불어 여타 여성들과도 교제관계를 넓혀 갈 때 남편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전업 주부가 경험하는 소외는 남편과 자녀들, 사회와 동료 여성들로부터의 고립을 포함한 3, 4종의 소외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지불해야 하는 가정에 대한 부담과 수고도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풀 타임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들에게는 자신의 일에 대한 사회적 성취감이나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있지만, 자녀 양육에 있어서 타인이나 기관에 위탁되어 있어서 아이와 애착(attachment)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자라갈수록 엄마와는 정서적으로 괴리되어 아이들이 애정 결핍이나 심지어 우울증이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와 같은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안타까워 직장으로부터 휴가나 휴직을 하려고 해도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혹은 이미 직장 생활을 하는 아내와의 삶의 방식에 익숙한 남편 때문에 그만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직업 상담이 “일의 성공과 만족에 관한 결정”에 대한 상담이라면 가족을 위해 가사에 참여하는 모든 여성들은 자신들의 가사 노동의 의미와 만족에 관하여 의논할 권리가 있다. 특히 가정을 위해 일하는 여성들의 수고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가족으로부터 다양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John Calvin에 따르면 여성의 가사 노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이다.¹⁾ 가사 노동을 하는 여성들 역시 여타 직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은사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부지런함, 정직함, 그리고 신실함의 태도들을 가져야

1) William Bouwsma, *John Calvin: A Sixteenth Century Portrait*, 이양호 · 박종숙 공역, 『Calvin』 (서울: 나단출판사, 1991), 180.

한다.”²⁾ 가사 노동은 많은 여성들에게 직업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소명으로서의 가사 노동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Calvin 신학의 입장에서 신학적 의미를 부여 받고 새롭게 조명될 수 있다. 그러나 때로 그런 전통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균형을 잃은 사람들은 여성의 가사 노동을 ‘당연시’ 하거나, 여자라면 으레 그렇게 해야만 하는 존재로 규정지어버릴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 이해를 신앙적 권위에 의존하여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면 자칫 여성의 가사노동을 일상적인 여타 직업으로부터 무의미한 것으로 고립시키거나, 무능력한 여성들의 무기력한 선택이라고 업신여기게 된다.

가정에서의 여성들의 일상적 가사 노동은 거룩하며 하나님께서 그 중요성을 인정하시는 거룩한 임무이다. 그러나 그 거룩한 임무가 끝이 없고 쉽게 정돈되지 않으며 거룩함을 생각하기조차 힘든 환경이라는 사실은 또한 별개의 문제이다. 매일의 삶이 거룩하다고 할 만큼 가사 노동의 일상적 영역이 그리스도인 여성들에게 구별된 의미를 가진 것이 사실이지만 가정에서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성들에게는 언제나 초월적인 기쁨이나 만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가사 노동을 해야 하는 여성들에게는 “가정이 벗어날 수 없는 요구의 장소, 자신의 휴식과 보양이 필요한데도 배우자와 자녀들의 필요 때문에 늘 갈등을 일으키는 장소... 혹은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는 가운데 다수의 가사 노동을 책임져야 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³⁾

그렇다면 지루하고 반복적인 가사노동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후회 없이 계속해 가도록 도울 수 있는가? 반복적인 가사 노동의 일상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하여 여성에 관한 학문적 이론들은 가사 노동의 현장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 완성되어야 한다. 여성의 본질

2) Rodney Hunter,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Nashville, TN.: Abingdon, 1990), 1336.

3) Nicola Slee, *Women's Faith Development: Patterns and Process* (Burlington, VT.: Ashgate, 2004), 154.

에 대한 그 어떤 인간의 정의(definition)도 여성의 본분(essentialized)을 이기적으로 고착시키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피드백(feedback)과 교정이 필요하다. 여성의 가사 노동을 당연시하는 태도는 독(毒)과 같이 여성과 가족 관계를 병들게 한다. 가사 노동이 원래 그런 것이라고 여기거나, 혹은 그렇게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taken for granted)이라고 단순히 성 역할(gender role)을 규정하고 책임까지 떠맡기는 대신, 여성의 삶에 중첩된 스트레스를 나누어질 수 있는 동반자와 가족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전업주부로 일하는 여성들의 가사 노동은 지속적인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영적인 격려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의 일상적 배려와 휴가, 가사 노동의 분담에 따른 의무에서부터의 자유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남편과 다른 가족 구성원이 함께 가사 노동에 참여하고, 서로의 양육의 의무를 분담하려는 현실적인 헌신과 노력은 대부분 여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가사 노동을 진정으로 기록하게 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여성들을 격려하고 존중하는 일이다.

II. 펴는 글

1. 노동과 신앙

사회학자 Max Weber에 의하면 신학자 John Calvin으로 부터 비롯된 기독교 신학은 서구 자본주의 정신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었다. 물론 Calvin은 신학자로서 스스로 자본주의의 번성을 의도하지는 않았다. 오직 “영혼의 구원만이 [Calvin을 비롯한 개혁자들의] 삶과 일의 중심이었다. 그들의 윤리적 이상이나 실제적 결과는 오직 거기에 모두 기초하고 있고, 그것들은 순전히 종교적 동기에 의한 결과였을 뿐이다.”⁴⁾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가진 “신적 소

4)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8), 89-90.

명”으로서의 직업과 삶에 대한 이해는 서구의 자본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중요한 사상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Calvin의 소명론을 직접 살펴 보면 Weber의 해석이 과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alvin은 인간이 자신의 맡은 일에 우선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게 일하도록 창조하셨으며, 손과 발을 통해 그 산업을 경영하게 하셨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인간의 본성의 필요에 속한 것”으로서, 아담은 타락하기 이전부터 “동산을 돌보기 위하여 동산 안에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의 위치를 부여 받았다.” Calvin에 의하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쓸모없는 나무 토막과 같다.⁵⁾

무기력과 게으름으로 인한 인간의 삶의 낭비를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특별한 삶에서 의무를 부과하셨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경계선을 생각 없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소명”(callings)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지정하여 주셨다.”⁶⁾ 인간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야 하며, 그럴 때 인간은 비록 짧은 시간을 살면서도 현명하고 정돈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삶에 대한 이런 Calvin의 요청에 대하여 Weber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소명으로서 마치 그 자체가 절대적인 목적인양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⁷⁾ 노동 그 자체가 목적이며 소명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변명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 목적이 있는 그대로 절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여겼던 것이다. 심지어 수입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안락에 기대지 않고 오직 일에 대한 성실한 책임감 있는 자세를 그는 Calvin에서 비롯된 성실한 소명의 삶이라고 믿었다.

Weber는 노동에 대한 이런 태도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a product of nature)이 아니며, “낮은 임금 혹은 높은 임금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

5) Bouwsma, *John Calvin*, 462.

6)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III. 10. 6.

7) Weber, *Protestant Ethic*, 60.

다. 오직 오랜 기간 동안의 수고스러운 교육의 과정의 산물일 뿐이다.”⁸⁾ 이를 위해 경건하고 신실한 신앙적 가정의 교육과 양육이 책임감 있고 진취적인 작업 태도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다. Weber는 당시 독일의 젊은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만을 소개하면서, “그들은 거의 대부분 한 번 배우거나 물려받은 노동의 요령을 포기하지 못하거나 혹은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나 새로운 방법들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며, 집중하여 그런 지식을 도저히 배우지도 못한다. 무엇보다도 자기들에게 훨씬 이익이 되고 작업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만 이해력의 완전 결핍이라는 어려움에 일반적으로 봉착하고 있다”고 말한다.⁹⁾

여성의 무지와 비효율적인 부진성이 여성 노동자들에게 나타나는 것과 반대로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효율적인 교육으로 건전하고 진취적인 노동 생산성을 가져온다고 믿었다.

구체적으로 종교적이고, 특히 경건주의적(Pietistic) 배경을 가진 소녀들...에게만 경제에 관한 최상의 교육 기회가 있음을 듣는다. 자신의 직업에 대해 본질적인 완전한 의무감과 정신적인 집중의 능력과...차가운 자기 통제와 근검성은 생산성을 크게 고양시킨다.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에 필수적인 소명으로서 노동을 목적 그 자체로 여기는 신념의 가장 튼튼한 기초이며, 전통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와 같은 종교적 양육이 있을 때 가장 극대화된다.¹⁰⁾

결국 Weber는 노동의 효율성과 진보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종교적 교육과 양육을 자본주의의 필수적 요소로 상정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정신의 실현을 위하여 그는 가정의 신앙적 교육을 창의성과 변화를 위한 정신의 출발점으로 생각하였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기술과 노동의 효율성을 이룩하기 위해서

8) Weber, *Protestant Ethic*, 60.

9) Weber, *Protestant Ethic*, 60.

10) Weber, *Protestant Ethic*, 62-63.

는 전통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기독교적 소명의 태도가 자본주의 사회에 필연적임을 Weber는 역설하고 있다.

Weber는 여성들을 산업사회의 노동력의 한 원천으로서 보고 탈 전통의 기수로서 경건한 여성들의 역할에 대하여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그의 노동관은 또한 자신이 살았던 낭만주의적 시대의 요청에 따라 창의적인 노동을 통해 자본주의적 인간 사회의 진보를 꿈꾸는 낙관적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노동력과 생산성, 탈 전통과 진보에 있어서만 자본주의의 의미와 노동력의 가치를 두면서도 여성의 가사 노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2. Calvin의 소명관

삶에 대한 성실한 자세를 요청함에 있어서 Weber는 Calvin의 소명론과 자본주의적 정신의 배경을 의미 있게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Calvin의 종교 윤리적 작업의 부수적 결과로 자본주의 정신이 발생했음을 말할 뿐, Calvin의 신학에서 “세상의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긍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를 가졌다”는 사실을 긍정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¹¹⁾

부와 자본주의적 경제학에 대한 Calvin의 인정은 Weber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매우 적극적이다. Calvin은 부의 가치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그 권리를 결코 비난하지 않는다. 당시의 다른 인문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부를 옹호”하였으며¹²⁾ 부요함 그 자체가 비난 받아서는 안된다고 확신하였다. 재산의 소유를 부인하는 것은 부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불경한 것이며, 특히 가난한 자들을 책임 있게 돌보는 부자들의 풍성한 삶이 그릇된 것은 아니었다.¹³⁾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그리스도

11) Weber, *Protestant Ethic*, 89.

12) Bouwsma, *John Calvin*, 458.

13) Bouwsma, *John Calvin*, 458.

의 권고에 대해 Calvin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배척”한다.¹⁴⁾ 오히려 그는 상식으로 그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신 것은 부의 부정이 아니라 그 “청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숨겨진 악덕’을 깨닫도록 하는 의도 뿐이”었다고 말한다.¹⁵⁾

놀랍게도 Calvin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문자적으로 집착하는 대신 자신이 소유한 상식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해석한다. 그는 부자가 자선을 베푸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계획 없이 재물을 낭비하는 것”에는 반대한다.¹⁶⁾ 가족의 필요를 공급하고 자선을 베푸는 것은 소유한 부를 즐기며 올바르게 사용하는 정당한 방법이다. Calvin은 부를 통한 즐거움을 인정하고, 풍성하게 주신 것을 정당하게 즐기는 것을 정상적인 삶의 과정으로 인정한다.

자본의 올바른 운용을 긍정하면서 Calvin은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빌려주라는 그리스도의 명령과 통상적인 사업상의 대부(loan)를 분리시키고자 애썼다.”¹⁷⁾ 부당한 이자의 수탈을 비난하였지만 대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비난만 하려고 하지 않는다. “공평과 형제애에 모순이 되지 않는”다면¹⁸⁾ Calvin은 자신이 사는 시대의 경제적 운용 시스템에 대해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본주의적 경제 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수긍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Calvin은 빈곤에 천사의 덕을 부여하거나 테베 사람 크라테스(Crates the Theban)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다 속에 던져버린 것을 모방하는 사람들을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재물을 버리지 않고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거나, 빈곤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광신적 태도를 그는 경계하였다. 필요에 맞는 재산을 소유함으로써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을 Calvin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추천한다.¹⁹⁾

14) Bouwsma, *John Calvin*, 458.

15) Bouwsma, *John Calvin*, 458.

16) 예레미야 22:16 주석, Bouwsma, *John Calvin*, 459에서 재인용.

17) Bouwsma, *John Calvin*, 460.

18) 출애굽기 22:25 주석, Bouwsma, *John Calvin*, 460에서 재인용.

19) 창세기 26:16 주석, Bouwsma *John Calvin*, 462에서 재인용.

그렇다고 Calvin이 자본주의적 진보와 성취를 위하여 일과 노동만을 추천하지는 않는다. 언제나 그러하듯 Calvin은 일과 노동에 있어서도 균형 잡힌 중립적 태도를 요청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과도한 노동과 일에 대한 욕심은 “자신들의 소명이 요구하거나 허락하는 것보다 더 바쁘게 부산을 떨 때, 이들은 헛되이 자신들을 괴롭히고 피로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²⁰⁾

Calvin은 바쁘고 피곤할 만큼 일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려하였으며, 그 우려는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였다. 그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그리고 과도하게 일을 함으로써 자기들 스스로의 처형관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Bouwsma에 따르면 Calvin은 “자기 자신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만큼 그 자신도 일에 대한 다소의 과도한 열정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²¹⁾

Calvin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재능에 과하지 않도록 자신의 의무 결정을 조절하기 원했다. 무조건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노동을 할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누어 효과적으로, 그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가르침이다. “사람들이 쉬지 않고 이리 저리 뛰어 다니지 못하도록 뚜렷한 조치가 이들에게 내려지지 않으면, 사람들이...잘못되게 부산을” 떨게 된다.²²⁾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노동으로부터의 휴식을 요구함으로써 과욕을 조절하도록 한다는 면에서 Calvin은 노동에 대한 균형 잡힌 신학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현대적 의미로서의 노동과 휴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개인 삶의 경계선을 정해주는 것이 사실이지만,²³⁾ 한 개인의 정당한 노력을 통해 직업이나 사업의 업종을 바꾸는 자유에 대하여 Calvin은 매우 유연한 관점을 제시한다. Calvin은 한 사람이 “다른 직업을 배울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상인이 농업으

20) 마태복음 6:25-30 주석, Bouwsma, *John Calvin*, 463에서 재인용.

21) Bouwsma, *John Calvin*, 463.

22) 민수기 4:4 주석, Bouwsma, *John Calvin*, 463에서 재인용.

23) Calvin, *Institutes*, III. 10. 6.

로 직업을 바꾸는 것”이 허락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²⁴⁾ 정당한 노력을 통해 업종을 바꾸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미신을 비롯한 막연하고 사려 없는 태도는 무책임한 것으로 비난하였다. Calvin의 노동관은, 그의 다른 신학적 이해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격적이고 유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과정과 목적에 관련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여성의 부르심과 가사 노동

가정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것은 Calvin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이다. 남성은 자연적 체계와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우월한 위치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면서 Calvin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남성의 우월함을 변호한다.

누구로부터 모든 산업과 예술과 과학이 유래했는가? 누구로부터 노동이 유래하는가? 이 모든 것이 남성으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은 확실한 일이다.” 여성이 “자기의 남편을 섬기고, 존경과 영예를 표해야” 한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여성들은 “통상적인 자연의 법칙에 의하면, 복종하기 위하여 태어난다. 왜냐하면 모든 현자들이 여성들이 다스리는 정부 체제를 자연에 거스리는 괴물로 배척했기 때문이다.”²⁵⁾

가족의 질서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함을 Calvin은 분명히 주장한다. 반면에 여성들이 사회 지도적 위치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상식과 자연의 원리를 동원하여 반대하고 있다. 여성은 몸의 일부이어야 하며, 그것은 몸의 위에 머리로 위치할 수 없는 것이라 말한다.

몸의 일부에 속하는 여성이 몸의 모든 부분의 위에 위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사나운 꼴인가! 자연적 적합성이 존중 받았던 곳에서는 어디든지, 모든 나이의 여성들이 공적 행정으로부터 배제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24) Bouwsma, *John Calvin*, 464-97.

25) 고린도전서에 대한 설교 12번, 734, Bouwsma, *John Calvin*, 178-179에서 재인용.

여지가 없다.²⁶⁾

Calvin은 여성의 영역을 가정에 제한시키고, 여성의 덕을 정숙함과 겸손으로 확인시켜준다. 때로 여성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자연에 의하여 규정된 질서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집 안에서, 사적으로 이 가르치는 일을 수행했”던 브리스길라(Priscilla)의 경우와 같이 정해진 공간 안에서 지도력의 수행이 가능할 뿐이다.²⁷⁾ 외형적으로 보자면 정숙한 겸양의 덕을 가진 여성은 그 눈빛을 위가 아닌 아래를 향해 다소곳이 낮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Calvin이 여성의 위치를 가정에 제한시키는 것은 매우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여성이 집안 일을 자신의 본분으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자는 “집을 지키고, 침대를 정돈하고, 청소하고, 요리를 하고, 어린아이들을 돌볼 때, 그녀는 훌륭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²⁸⁾ Calvin은 이러한 여성의 가사 노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만일 여성이 그 본분을 떠나서 함부로 행동하거나, 자신이 지켜야 할 삶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그 여성은 예상하지 못한 불행을 겪을 수도 있다.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겁탈당했던 이유도 바로 자신의 삶의 범위를 “벗어나 이리 저리 자유롭게 돌아다녔기” 때문이었다.²⁹⁾ 디나의 사례를 두고 Calvin은 사실 피해자의 고통을 다루기보다 남성적 관점에서 여성 디나의 그릇된 행위에 대하여 우선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대의 남성 중심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Calvin은 여성에게만 가정사의 책임을 돌리지는 않는다. 남성들이 자기 책임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할 때 그들의 무책임을 비난하였다. 그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일을 기꺼이 떠맡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한탄

26) 고린도전서 14:34 주석, Bouwsma, *John Calvin*, 179에서 재인용.

27) 사도행전 18:26 주석, Bouwsma, *John Calvin*, 179에서 재인용.

28) 사무엘하에 대한 설교 16번, Bouwsma, *John Calvin*, 180에서 재인용.

29) Bouwsma, *John Calvin*, 75.

하였다.³⁰⁾ 동시에 “복종의 멍에”를 감당하기 싫어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한탄한다.

“다스림”에 대한 Calvin의 관점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Calvin 자신도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기대했던 것은 자신의 ‘종인 아내’의 복종이 아니라, “겸손하고, 적응할 줄 알고, 거만하지 않으며, 검소하고 인내심이 있는” 여성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다.³¹⁾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잘 대우해야” 하며, 비록 아내의 역할은 “열등”하지만 거기에 만족하면서 인내하여 행동해야 한다.³²⁾

Calvin이 딸들에 대해서는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을 피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엄격한 훈육을 요청하였고, 그들의 “미숙한 경험이나 잘못된 욕구들”은 교정을 받아야 한다고 확신하였다.³³⁾ 딸이 결혼할 때에도 그 배우자의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미숙하고 잘못된 딸들의 오류를 바로 잡는 일로서 “사물의 정상적인 질서”에 합당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³⁴⁾

Calvin의 신학에서 상식과 자연의 질서는 인간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인간에 대하여 Calvin은 성경적이면서도 자연과 이성, 혹은 상식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통합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³⁵⁾ 신학에 있어서 자연과 이성이라는 기준은 Calvin의 신학으로 하여금 훨씬 유연하고 통합적인 인간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결혼 배우자의 결정에 관한 Calvin의 주장에서 보듯, 자연과 상식에 부합하는 질서가 500년이 지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상식적으로 유용성이 제한되는 것이 사실이다. 아들이나 딸들이 어머니나 아

30) Bouwsma, *John Calvin*, 179.

31) 1539년 5월 19일에 Farel에게 보낸 편지, Calvin 전집 X, 348. Bouwsma, *John Calvin*, 53에서 재인용.

32) Bouwsma, *John Calvin*, 179-80.

33) 고린도전서 7:37주석, Bouwsma, *John Calvin*, 181에서 재인용.

34) 예레미야 29:3-6주석, Bouwsma, *John Calvin*, 181에서 재인용.

35) 하재성, “목회자 Calvin의 신학: 그 실천적 인간상”,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상담분과 발표 주제논문, 2009. 10. 24.

버지의 결정에 따라 결혼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그의 관점이 한편으로는 유연하고 인격적이면서도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자기의 시대적 통념을 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16세기 유럽에서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여성에 대한 그의 기준이 자기 시대의 상식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성을 가진 것임을 감안한다면, 여성과 가사에 대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구체적인 실천과 이해의 면에서 Calvin의 요구를 보다 탄력성 있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4. 가사 노동과 여성의 자기 상실

미국 유학을 할 때, 두 어린 아이의 엄마요 전업주부였던 아내는 때로 공부를 하거나 일하는 이웃의 다른 아내들로 인해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다. 부부가 함께 공부를 하는 이웃의 가족들이 종종 어린 아이를 맡아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로서 자신의 아이를 돌보기에도 지쳐 있는 아내에게 자기 아이들을 돌보아 달라는 적극적인 그들의 요청은 아내의 고민과 불편함(resentment)을 깊이 자극하였다. 특히 개인의 성품이나 목회자의 사모로서 거절할 수 없는 위치 때문에 아내가 지볼해야 했던 수고로움은 결코 쉽고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어떤 형태의 고민이든 21세기를 살아가는 전업 주부의 고민은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들의 고민 이상으로 훨씬 복잡하고 진지하다. 많은 여성들은 가정과 자녀 양육에 매인 자신의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뒤쳐지고 있다는 “정체감(停滯感)”을 느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들의 고민은 육체적, 정신적 소진에 관한 고민이면서, 동시에 자기 삶의 의미에 대한 고민이다.

밴더빌트(Vanderbilt) 대학교의 목회 신학자이자 목회 상담학자인 Bonnie Miller-McLemore는 일찍이 여성의 직업과 가사 의무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룻기에 등장하는 오르바의 선택을 의미 있게 관찰하고 있다. 룻과는 달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유에 따라 “남편의 집에서 위로

를 받”기 위하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하였다.³⁶⁾ 여기서 오르바는 오늘날 아내와 엄마가 되기를 선택하여 다른 직업과 더불어 자녀를 가진 엄마들에 대한 비유이다. Miller-McLemore는 “오늘날 다른 야망과 더불어 엄마의 역할을 선택하는 많은 여성들은 오르바의 역사에 드리웠던 무명성과 미묘한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고 진단한다.³⁷⁾

결혼하여 가족을 위해 일해야 하는 여성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는 남성들에 비해 심각하다. 특히 아이(들)의 엄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성에게 여러 가지의 위험을 예고하고 있다.³⁸⁾ Miller-McLemore는 어느 여성이 했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나는 엄마가 된 것을 너무 즐거운 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때로는 그에 관하여 말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자신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되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면 안될 것 같기 때문이다.”³⁹⁾ 또 다른 어느 아이의 엄마는 한 때 자신이 해방을 누릴 때가 있었으나 아이를 가진 후에는 그 해방을 잃었다고 언급하기도 한다.

초기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의 자녀 양육과 가사 노동을 부정적이고 무가치한 것 이상으로 지극히 혐오할 만한 것으로 여겼다. 그들에게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여성의 생체적 기능은 저주였고, 임신은 고난이며, 아이들은 여성의 잠재력의 완전한 실현에 방해물이었다.”⁴⁰⁾ 물론 최근에 이르러서는 여성의 발달에 있어서 임신과 자녀 생산의 기능을 오직 여성만이 할 수 있고, 남성에게 비해 여성이 독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매우 높은 가치의 임무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여성주의자들의 위와 같은 비전통적 자기 정의(self-definition)와 모성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인 신학과

36) 룻기 1:6-14.

37) Bonnie J. Miller-McLemore, *Also a Mother: Work and Family as Theological Dilemma* (Nashville, TN.: Abingdon, 1994), 87.

38) 경쟁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장에서 여성이 가정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가지거나 엄마가 되기 위해 아이를 임신하는 것은 곧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하다. 남성 위주의 직장 사회에서 아이를 가지고 가정을 돌보려 하는 여성들은 남성에게 비해 몇 배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39) Miller-McLemore, *Also a Mother*, 88.

40) Miller-McLemore, *Also a Mother* 76.

신앙의 유산 가운데서 여성의 수고에 대한 충분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여성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새로운 생명 출생의 모체로서의 역할은 사회 문화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것은 오늘날 여성들, 특히 사회 경제적으로 고립된 위치에 있는 전업 주부들의 가사 노동에 대한 경멸과 비하의 이유가 된다. 그러므로 자녀 양육에 관한 여성의 수고는 단순히 “학문적인 세계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언어의 세계” 그 이상이다.⁴¹⁾

여성의 보건과 건강에 관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 보고에 따르면 여성의 육아와 노동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여성들은 육체적인 위험 요소들에 노출되어 안전과 건강의 위협을 안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로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여성들이 수행하는 많은 일들은 전혀 인식되지도 않고, 계산되지도 않고, [그 대가가] 지불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가사, 농업, 음식의 생산과 가정에서 만들어진 수제품의 유통에 있어서 그렇다... 모든 여성들이 돈을 버는 직업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거의 어떤 여성도 가사 노동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가정은 모든 인류의 생활에 있어서 기초적인 요소이므로 반복적인 가사노동의 위험은 쉽게 간과되고 있다.⁴²⁾

가사 노동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위험 요소들 가운데는 청소를 할 때나 화석 연료를 사용할 때 생기는 다양한 화학 연소 물질에 노출은 여성의 건강

41) Miller-McLemore, *Also a Mother*, 89. Miller-McLemore는 실천신학에 대한 그녀의 다른 논문 “Practical Theology as the End of Meta-theorizing about Practice” 에서 여성학자 Bell Hooks를 인용하여, “이론은 곧 고통과 갈등의 현장에서 만들어져야 하고... 상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목회적 혹은 실천신학적 이론은 새로운 경로의 이론적 여정이 필요한 것이다.

42) Penny Kane ed., “Women and Occupational Health,”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9, http://www.who.int/occupational_health/publications/womandoh/en/

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또한 관계 속에서 결혼한 가족들로부터의 소외와 폭력은 때로 여성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 가족을 떠나 있는 남편들로 인해 다양한 성병에 감염될 위험도 안고 있다.

가사 노동 가운데 특별히 여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어린 자녀의 양육과 병약한 가족들을 위한 간호이다. 때로 사회가 개방적이고 남성이 가사의 일을 돌볼 때가 있지만, “그 돌봄의 중심은 여성이며, [그 노동과 심적 의무의 과부하로 인해] 의외의 건강상의 위험으로 고통을 겪을 수 있다.”⁴³⁾ 더구나 노인 요양원과 같은 복지 시설에서 돌볼 수 없는 노부모들을 직접 부양하는 여성들의 역할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한계 상황에 이른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전업 주부 여성들을 더욱 좌절하게 하는 것은 해로운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이나 경제적 어려움, 혹은 가족 부양의 힘겨운 노동이 아니라 가족으로부터의 감사와 의미의 상실이다. 여성의 가사 노동이 가족들로부터 아무런 의미를 부여 받지 못한 채 당연하게 반복될 때 여성들은 우울해진다. 사회적 지위나 직업을 가지고, 일정한 노동에 대해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는 직업 여성들에 비해 전업주부들의 정신적 소외와 질병의 위험은 훨씬 크다. Miller-McLemore는 남을 위해 주기만 하고 자신은 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여성들에게 “심각한 유혹(a critical temptation)”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성찰하고 있다.

아이에게 귀를 기울이려 할 때 [엄마들은] 자신의 관점을 포기하거나 혹은 적어도 [아이의] 다급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아를 중심으로부터 이동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많은 여성들, 특히 엄마들에게 자신을 버리려는 유혹[이 있다.] ... 대부분의 여성들은 엄마 됨(motherhood)의 “안전한 부정”과 “그에 관한 전통적 상징의 수용”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기로에 놓였다.⁴⁴⁾

43) Kane, “Women and Occupational Health,” WHO.

44) Miller-McLemore, *Also a Mother*, 92-93.

자신의 자아가 견고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여성들의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
은 곧 존재감의 상실과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쉽다. 전통적인 심리분석 이론에
서 “아이가 분노를 자신에게 내면화할 때...[그리고] 자존감의 상실과 자신으
로 향하는 분노는 우울증을 일으킨다.”⁴⁵⁾ 더 나아가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살
아가는 여성들은 남성의 가치관에 의해 판단 받거나 통제됨으로써 더욱 많은
스트레스와 자괴감을 경험할 수 있다. 그들의 가치는 평가 받지 못하고, 그들
의 존재감은 상실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5. 가사 중독과 여성 케어

전업 주부의 육아와 가사 노동은 경제권을 가진 남편들에 의해 무시당
하기 쉽다. 많은 여성들은 가정의 모든 크고 작은 일에 대한 관심뿐만 아
니라 자녀들의 교육의 성과까지도 ‘남편 앞에’ 책임져야 한다. 이것은 많
은 한국의 여성들이 경험해야 하는 불공평한 여성의 성 역할(gender role)
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을 미워하는 문화 속에서 여성
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우울증이란... 여성의 가치를 평
가절하하면서도 여성성을 요구하고 우상화하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선택
한 생존의 전략(a survival strategy)이다.⁴⁶⁾

남성에 의한 여성의 차별이 흔한 것처럼 여성에 의한 여성의 고통 역시 적
지 않다. 시모에 의한 며느리의 고통이나, 우등한 위치에 있는 여성에 의한 취
약한 여성들의 고통이 그렇다. 예를 들어 목회자의 아내는 교회 안에 있는 다
른 일반 여성들에 비해 여러 면에서 우울증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매우 취약
한 위치에 놓여 있다. 교회의 일반적인 여성들이 누리는 자유로운 자기 표현

45) Christie Neuger, “Women’s Depression: Lives at Risk,” in *Women Travail and Transition: a New Pastoral Care*, eds. Maxine Glaz & Jeanne Stevenson Moessner (Minneapolis: Fortress, 1991), 148.

46) Miriam Geenspan, *A New Approach to Women and Therapy* (New York: McGraw-Hill, 1983), 119; Neuger, “Women’s Depression,” 152에서 재인용.

이나 편안한 관계가 이들에게는 보장되지 않는다. 때로는 교인들로부터 정당하지 못하게 간섭을 받으며 ‘감정적인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봉사나 섬김을 침묵 가운데 강요당하며,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케어나 필요의 공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교회의 청년부를 맡고 있어서 열심히 그 사역을 수행하는 사역자인 어느 남편은 청년들을 돌보느라 밤낮없이 뛰어 다녔고, 청년들의 교회 행사에 언제나 대동하면서 가정을 돌볼 여가가 없었다. 집에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의 아내는 ‘당연히’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이들을 ‘잘 키워야’ 했다. 그것이 사역자의 아내에게 ‘으레’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편은 젊은 여자 청년들과도 늦은 시간까지 어울리면서도 아내에게는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었다. 그 남편은 오히려 자신을 귀찮게 하는 아내를 책망하였다: “내가 청년회를 맡았는데 열심히 해야 할 것 아냐? 교역자의 생활이 이런 것인 줄 모르고 결혼했어?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야. 교역자의 사모로서 당신은 당연히 나를 전적으로 도와 줘야지! 사역자에게는 교회 일이 먼저지 가정 일이 먼저가 아니잖아!” 결국 그 아내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갈등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높은 아파트에서 주차장을 내려다보면서 “뛰어 내리면 참 폭신하겠다”는 상상을 하고 자살 충동까지 느끼고 있었다.

한국 교회의 남성 중심적 문화 속에서 우선 목회자의 가정에서도 여성의 선택과 의무는 목회자인 남편의 역할과 교회의 관습에 의해 심각하게 제한된다. 여성들은 우울하게 되고, 전통과 관습의 치우친 가치관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사 노동의 가치를 소멸시킴으로써 자기 가치를 잃어버리는 고통스러운 결론을 얻게 된다. 전업주부 아내가 우울하면 할수록, 그리고 결정권이나 삶의 권리에서 소외되면 될수록 어찌면 남편들이 여성을 통제하기는 쉬워질지 모른다. 그것이 악순환(a vicious cycle)될 때 여성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제한된 위치와 역할을 지속적으로 지키도록 강요받거나 그 자리에 순응하며 편안함을 느끼도록 요구 받는 것이다.

전업주부인 아내의 “건강과 전인성이란 여성과 남성이 함께 가부장적 사회의 불의를 변화시키기 위해 협력할 때 가능하다.”⁴⁷⁾ 누구든지-그것이 남편이든지 아니면 다른 위력을 가진 동료 여성이든지-아이를 돌보거나 자질구레한 일들을 정돈하는 주부의 노동을 “여자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단순하게 치부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특히 무임으로 가정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여러 전업주부들의 삶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혹은 자신을 위해 이용하는 일이다.

사회 경제적으로, 혹은 문화 관습적으로 소외된 전업주부 여성들의 수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가족, 혹은 믿음 공동체가 그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는”⁴⁸⁾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기 어렵고, 삶에 대한 의미를 더불어 찾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치유이며, 그들이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내면적, 외적 경험을 언어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곧 이들을 위한 직업 상담이다.

물론 한국의 보수적 신학의 토양에서 여성주의 학자들의 여성의 자기 표현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여전히 종교와 신앙의 지도력 영역에서 한국 교회는 서구 교회만큼 개방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변화의 요구도 그다지 시급하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과격한 변화는 여성들 사이에서도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 교회가 장차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되든, 우선 의미를 잃어버리고 의무만 강요당하는, 특별히 개인적 자유와 성취감에서 소외된 여성들의 가사 노동의 가치에 대해 재조명하고, 그들의 공헌과 중요성을, 단순히 사회적 구조를 재강화하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의 수고를 감사하는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반복적인 의무에 짓눌린 여성들은 신학적으로 스스로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이를 위해 연습할 필요가 있다. 여성들은 자신의 가사 일에 함께 하시

47) Neuger, “Women’s Depression,” 151.

48) Miller-McLemore, *Also a Mother*, 92.

는 하나님의 임재 하심을 체험하고, 그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전업주부나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들은 “종교와 영성은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며, 믿음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매일의 생활에 매우 깊이 스며 녹아 있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요리와 빨래, 청소와 양육을 통해 영적인 “환대 (hospitality)”를 일상의 삶에서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⁴⁹⁾

또한 가사 노동으로 인해 여성이 탈진하거나 불편한 마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resentment)하지 않도록 교회와 가족들이 함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09년 8월 31일, 노동 연구원에서 발간한 “월간 노동리뷰”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국 가운데 한국은 휴가 시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기간과 이를 위해 학업 기간을 포함하여 한국 사람이 하루 일을 하는 유급 근로 시간은 미국에 비해 한 시간이 더 많은 5.2시간이었지만, 가사 일을 돕는 무급 근로 시간이 다른 나라의 2/3 수준이며, 여가 활용 시간 역시 여전히 낮았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에는 하루 3.3 시간 동안 일을 하고, 6시간은 여가로 보내고 있었다.⁵⁰⁾

한국 사회의 급박한 노동 환경과 열악한 휴가 구조는 당연히 가족과 가정 주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사 노동에 있어서 서로 일을 나누어 할 수 있는 가사 분업의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고, 가사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전업주부의 일에 대한 관심도 감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러 문화에서 게으름은 정죄하지만 과도한 노동에 대해서는 오히려 성실함의 덕으로 찬미한다. 문화적 강화로서의 과도한 노동이 찬미 받는다면, 또한 Calvin의 언급처럼 “소유를 향한 광기 어리고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때문에 일을 놓지 못하는 일 중독도 있다. 그것은 오늘도 많은 사회 구성원들과 가정들을 “휩쓸고 있는 가장 무서운 역병”의 하나이기도 하다.⁵¹⁾

목회 상담자 Wayne E. Oates는 특별히 여성들의 가사 노동에도 일 중독 증

49) Slee, *Women's Faith Development*, 152-153.

50) “여가시간 너무 부족한 한국”, 『서울신문』, 2009.09.01.

51) Bouwsma, *John Calvin*, 127.

상이 나타난다고 경고한다. 가정의 일에 중독되어 뭐든지 자신이 직접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강박적인 청결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여성의 가사 노동 중독이 단순히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되지만은 않는다. 가사 노동을 하는 전업 주부를 둘러싼 다양한 관계와 문화적 환경이 가사 노동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면이 적지 않다. “남성의 노동은 해 떼을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이지만 여성의 노동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다.⁵²⁾

Oates에 따르면 가사일 중독자 아내들은 원 가족(family of origin)에서 책임감이 강한 큰 딸이거나 형제들 가운데 외동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들의 강박성은 바깥일로 분주한 엄마가 그 딸을 통해 가사를 통제했다거나 “당황스러운 현실 앞에서 공격과 분노를 부적절하게 다룬” 결과일 수도 있다.⁵³⁾ 때로는 친밀한 관계나 대화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혹은 일 중독자인 남편에 대한 반응으로 전업주부의 일중독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재능이나 만족을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닥치는 대로] 모든 일을 다하려고한다”는 점이다.⁵⁴⁾ 거기에는 물론 여성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기애적 욕구도 포함되기도 한다.

여성이 일정한 일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표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노동은 인격적인 관계들과 같이 삶의 동일하게 중요한 측면들을 회피하려는 중독적인 방어기제가 될 수도 있다.”⁵⁵⁾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외면한 채 가사 일에 중독되고, 감정적으로 가족들로부터 소외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학적으로 볼 때 일 중독은 일을 통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우상의 일종이다. 만일 “게으름에 대한 보편적인 금기와 성실함에 대한 종교적 이상화; 낭비는 악덕이며 검약은 미덕; 만족이나 실패는 범법이며, 야망과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의 확실한 표징; 죄의 보편적 표징은 가난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결

52) Wayne E. Oates, *Confessions of a Workaholic* (Nashville, TN.: Abingdon, 1971), 73.

53) Oates, *Confessions of a Workaholic*, 75.

54) Oates, *Confessions of a Workaholic*, 78. []안은 필자 삽입.

55) DPCC, 1337.

정적인 표징은 부”라는 개념을 기독교(Protestant)의 일 윤리에서 찾는다⁵⁶⁾ 그것은 신학을 단순화시키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Calvin이 비록 일에 대한 책임성과 근면을 강조했지만, 그는 결코 일에서부터의 휴식의 필요성을 간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업주부들 역시 일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일을 절대시하는 것은 “일을 우상화 하거나 일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자기 가치와 정체성을 위한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⁵⁷⁾ 오히려 자신의 가능성과 한계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하나님의 인정은 이마의 땀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무 값없이 받는 것임을 새롭게 깨달”아야 한다.⁵⁸⁾

그러나 가사 노동에 지친 여성을 위해서는 혼자만의 믿음에 대한 노력 이상으로 남편을 비롯한 온 가정의 이해와 배려, 격려와 감사가 필요하다. 경제적 수단이 별도로 없는 아내를 위해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남편의 배려있는 지출의 균형이 필요하다. 사회 활동과 지출의 우선순위가 남편들에게 편중되어 있다면, 이제 전업주부를 위한 지출의 균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직업 상담이 직업의 선택이나 지속적인 자기 성취를 목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또한 가족을 위한 최상의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신을 소모하며 자기 봉사의 의미를 추구하는 여성들을 공감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III. 닫는 글

가사 노동의 반복성은 비록 이 시대 여성들의 사회적 성취와 약진에 뒤지는 무능력한 여성들의 영역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하기 쉽지만 신학적으로는 그 정반대이다. 하나님께서는 여성의 가사 노동을 소중한 산제사로 받으시기 때문이다.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을 통해 여성들은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

56) Oates, *Confessions of a Workaholic*, 84.

57) DPCC, 1337.

58) Oates, *Confessions of a Workaholic*, 94.

는 가정과 다음 세대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태여 Max Weber가 노동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라고 말하는 Calvin의 목소리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여성들의 가사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노동이다.

노동과 수고를 통해서 얻은 부는 결코 정죄할 대상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가사 노동에서 여성이 얻는 보람과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이며 보상이다. 하지만 가족이나 사회가 여성의 가사 노동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그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가사 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일이다. 그런 행위는 반복과 인내로 자칫 불편한 마음을 가지기 쉬운 가사 노동자들을 좌절시키는 일이다.

물론 남성과 여성의 신학적 관계에 대한 16세기 Calvin의 이해와 21세기 오늘날 사회의 상식은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자신의 가족과 아내에 대한 Calvin의 성실함과 따뜻함은 오늘날 그리스도인 부부들에게도 인격적인 관계의 좋은 모델이 된다. 그는 결코 자신의 신학에서 언뜻 오해하기 쉬운 권위주의적이거나 일방적인 명령의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21세의 가사 노동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상당한 위험과 위기를 암시하고 있다. 사회와문화의 강박적인 발전 속도가 가사노동에 전념하는 여성들의 후회와 탈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가사 노동의 의무뿐만 아니라 노동의 신학적인 의미가 새롭게 부여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의미와 더불어 다양한 종류의 보상과 위로가 뒤따라야 한다. 신학적인 권위로 성 역할을 정한 후에는 그 권위를 배경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여성과 가정, 그리고 사회 전체를 위해 불행한 일이다.

가사 노동을 하는 여성들의 일상이 거룩하고, 그곳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도록 격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인내심 없이는 지속할 수 없는 가사 노동자들의 수고에 배우자와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와 구체적인 감사의 표현이 중요하다. 노동에 대한 중독을 미덕으로 칭찬하지 말고 휴가와 가시적 보상을-그것의 크기를 막론하고-제시해야 한다. 물론 가사 노동의 당사자들도 일을 이상화함으로써 거기에 빠져들거나 일을 무조건 회피함으로써 가족

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특별히 가족을 위한 사랑과 섬김의 동기만으로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전업주부의 수고에 대하여 가사분담과 재정의 분배, 그리고 가사 노동의 지독한 반복성 이상으로 배려와 사랑에서 비롯된 휴가와 위로가 가사 노동자에게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 하재성. “목회자 Calvin의 신학: 그 실천적 인간상”.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상담분과발표 예정주제논문. 2009. 10. 24.
- Bouwsma, William. *John Calvin: A Sixteenth Century Portrait*. 이양호 · 박종숙 공역. 『Calvin』. 서울: 나단 출판사, 1991.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 Geenspan, Miriam. *A New Approach to Women and Therapy*. New York: McGraw-Hill. 1983.
- Hunter, Rodney.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Nashville, TN.: Abingdon. 1990.
- Kane, Penny. ed., “Women and Occupational Health.”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9.
http://www.who.int/occupational_health/publications/womandoh/en/
- Miller-McLemore, Bonnie J. *Also a Mother: Work and Family as Theological Dilemma*. Nashville, TN.: Abingdon. 1994.
- Neuger, Christie. “Women’s Depression: Lives at Risk.” In *Women in Travail and Transition: a New Pastoral Care*. eds. Maxine Glaz & Jeanne Stevenson Moessner. Minneapolis: Fortress. 1991.
- Oates, Wayne E. *Confessions of a Workaholic*. Nashville, TN.: Abingdon. 1971.
- Slee, Nicola. *Women’s Faith Development: Patterns and Process*. Burlington, VT: Ashgate. 2004.
- Weber, Max.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rit of Capitalism*.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8.

【 Abstract 】

A Crisis of Women with Family Duties

Jaesung Ha

Korea Theological Seminary

Heavy burdens of family duties, from housekeeping to raising children, bring about women's identity crisis in today's Korean society. Many of them experience a low self-esteem and a sense of resentment when those duties exhaust their life energy with simple repetitions of labor without significant meaning. However, children and family may continue to demand more from the women's side, considering their commitment taken for granted. John Calvin introduced one's job as a calling from God, which has put a solid foundation of the Western capitalism, according to Sociologist Max Weber. Women's duties for the family equal a spiritual sacrifice to God from Calvin's perspective. However, Calvin's understanding of gender roles of his day may provoke a keen dissention even among his modern followers because of his 'seemingly' authoritarian position of husband in the family. His own family, as a matter of fact, practiced mutual respect and sincere care to one another. Without informed discernment, today's Christians may misunderstand his teachings about gender roles in the family by essentializing women's labor without full appreciation or compensation. By providing proper theological meanings and by giving genuine appreciation for women's work at home, we may prevent them from deepening resentment and self-diminishing workaholism.

Key words: John Calvin, work counseling, labor, calling, gender role

